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8.27

AUGUST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383.10원 (+2.50원)

KOSPI

6,808.21 (+65.47, +0.97%)

KOSDAQ

826.87 (-0.28, -0.03%)

국고채 10년 금리

4.288 (-0.032%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유통

세번째 모멘텀을 기다리며 [박종대]

Global Asset Strategy

신용국 전략

인도 이슈 업데이트: 스마트폰 제조 계획(MPMS) 확정 [김근아]

기업분석

우리금융

3분기 증익 가능성 높다. CET 1 비율도 14% 상회 예상 [최정욱]

현대차

2026년 CEO Investor Day 핵심내용 [송선재]

SK이노베이션

SKIET 흡수합병에 따른 기존 주주 보호정책 필요 [윤재성]

SK바이오팜

넥스트 엑스코프리 확보와 경쟁자 견제를 한번에 [김선아]

산업분석

유틸리티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정책 발표 [유재선]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삼성물산, NAVER, 대한항공, KCC, DN오토모티브, 농심, SK이터넥스, 실리콘투, 티에프이

하나증권



Neutral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8월 26일

BGF리테일(282330)

BUY | TP 180,000원(상향) | CP 148,200원

롯데쇼핑(023530)

BUY | TP 140,000원(하향) | CP 105,100원



Analyst 박중대 forsword@hanafn.com
RA 양정석 jsyang@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8월 27일 | 산업분석_Industry In-depth

유통

세번째 모멘텀을 기다리며

3분기 소비 지표들은 비우호적

3분기 숫자들이 썩 좋지 않다. 백화점 기존점 성장률은 QoQ 5%p 가까이 꺾였다. 3분기 주요 백화점 기존점 성장률은 YoY 10% 내외에 그칠 듯하다. 물론, 2~3년 전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보기에 좋지 않다. 전년도 베이스가 조금씩 부담이 되고 있고, 주식 자산 효과가 약화된 영향도 있는 듯하다. 3분기 편의점 동일점 성장률도 YoY 1% 수준에 그칠 듯하다. 전년도 소비쿠폰 효과 베이스가 높다. 대형마트가 가장 좋다. 기존점 성장률이 YoY 15% 이상으로 백화점을 역전하고 있다. 전년도 소비쿠폰 영향 낮은 베이스에 홈플러스 영업중단까지 반사이익이 크다. 8월 소비심리지수는 이런 실적 둔화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104.5로 전월 대비 2.3p나 하락했다. KOSPI 급락이 소비심리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음을 입증했다.

주가는 모멘텀의 골짜기에서 숨고르기 중

2026년 유통 업종은 세가지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다. 첫째, 외국인 인바운드 모멘텀은 YoY 20%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백화점 기존점 성장률을 YoY 5%p, 편의점 동일점 성장률을 YoY 1%p 제고시키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둘째, 주식자산 모멘텀은 정점을 지났다. 물론, KOSPI가 반등할 수 있지만, 지난 1년처럼 백화점 실적의 강한 드라이버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셋째, 가계소득 증가 모멘텀이다. 2026년 폭발적인 수출/GDI 성장이 향후 국내 경제와 소비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가계소득과 소비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2027년에 도래할 모멘텀이다.

투자전략: 방어하거나(편의점), 미리 사두거나(백화점)

업황을 봤을 때는 대형마트가 가장 좋다.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두 회사 모두 대형마트만으로 접근하기에는 다른 사업/계열사 불확실성이 크다. 특히, 이마트는 신세계건설 손실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 백화점 업체들은 주가 불확실성이 작지 않다.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도 부담이지만, 밸류에이션 변동 폭이 컸던 만큼 적정 PER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다. 업종 주가 모멘텀의 골짜기에서 편의점 업체들의 높은 실적 가시성과 여유있는 밸류에이션은 훌륭한 방파제가 될 수 있다. 2027년을 미리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백화점 업체들을 미리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도 유효하다. 특히, 2027년 모멘텀은 전반적인 가계소비 수요 증가에 기인하는 만큼, 포괄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영위하고 있는 롯데쇼핑의 실적 모멘텀이 가장 클 수 있다.

2026년 8월 27일 | Global Asset Research

인도

신흥국 전략

인도 이슈 업데이트: 스마트폰 제조 계획(MPMS) 확정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제조 계획 정식 고시. 생산 확대, 부품 국산화, 로컬 브랜드 육성 추진

인도 정부가 6,250억 루피 규모의 스마트폰 제조 계획(Mobile Phone Manufacturing Scheme, 이하 MPMS)을 발표했다. FY2027년부터 FY2031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이번 정책은 인도 내 스마트폰 생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부품의 현지 조달과 로컬 브랜드 육성을 통해 국내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도의 스마트폰 산업은 모디 정부가 추진해 온 제조업 육성 정책 가운데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분야 중 하나다. 정부는 Make in India의 연장선에서 2020년 생산연계인센티브(PLI)를 도입했으며, 14개 지원 산업 중 전자제품 분야에 가장 큰 규모의 인센티브를 배정해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의 생산시설 이전을 유도했다. 그 결과 인도는 단순한 스마트폰 소비시장에서 글로벌 생산·수출기지로 빠르게 전환됐으며, 스마트폰 수출액은 최근 5년간 약 8배 증가해 PLI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잡았다.

MPMS는 지난 3월 종료된 전자제품 PLI(PLI-LSEM)를 잇는 후속 지원책으로, 크게 기존 스마트폰 제조사의 인도 내 생산 확대(TS1)와 자체 로컬 브랜드 육성(TS2)이라는 두 트랙으로 구성된다. TS1은 FY2026년 기준 매출 1,000억 루피 이상인 제조사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500억 루피의 추가 매출을 달성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높은 기준을 제시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수출기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부품의 현지 조달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다. 인도 현지에서 조달한 핵심 부품이 연간 휴대폰 생산 대수의 25% 이상에 적용될 경우 기업들은 최대 1.5%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PLI를 통해 스마트폰 완제품 생산과 수출은 빠르게 늘었지만 핵심 부품의 수입 의존도는 여전히 높아 국내

부가가치 확대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인도산 부품 사용을 직접 유도함으로써 공급망 내재화를 강화하고, 생산 확대가 국내 부가가치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금번 MPMS는 인도의 스마트폰 제조업 육성 정책이 생산 규모 확대에서 공급망 고도화로 한 단계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 발표 직후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지는 않았는데, 이는 기존 PLI 종료에 따른 인센티브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MPMS가 높은 매출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수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생산기지가 인도로 이전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 역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완제품 생산 확대와 부품 현지화를 유도하고 있어 스마트폰 제조 생태계의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책 수혜 강도는 기업별 추가 생산 계약 확보와 출하량 확대 여부 등에 따라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정책의 초점이 부품 현지화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Kaynes Technology, Syrma SGS Technology 등 핵심 부품 생산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2026년 8월 27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43,000원
현재주가(8.26) 33,0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808.21
52주 최고/최저(원)	40,800/24,250
시가총액(십억원)	24,027.0
시가총액비중(%)	0.43
발행주식수(천주)	736,786.6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246.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70.5
외국인지분율(%)	46.09
주요주주 지분율(%)	
우리금융지주우리아주 외 1인	7.76
국민연금공단	7.18

Consensus Data

	2026F	2027F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4,380	4,799
순이익(십억원)	3,340	3,579
EPS(원)	4,400	4,721
BPS(원)	53,444	56,352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총영업이익	10,440	10,957	12,123	12,562
세전이익	4,223	4,116	4,342	4,727
지배순이익	3,086	3,141	3,194	3,429
EPS	4,157	4,281	4,418	4,783
(증감율)	24.7	3.0	3.2	8.3
수정BPS	45,933	49,107	55,978	61,228
DPS	1,200	1,360	1,550	1,750
PER	3.7	6.5	7.5	6.9
PBR	0.33	0.57	0.59	0.54
ROE	9.4	9.0	8.3	8.1
ROA	0.6	0.6	0.5	0.5
배당수익률	7.8	4.9	4.7	5.3



Analyst 최정묵,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우리금융 (316140)**3분기 증익 가능성 높다. CET 1 비율도 14% 상회 예상****우려에서 빚겨나 있는 저평가 은행지주사. 3분기 실적 시즌을 겨냥한 관심종목 제시**

우리금융에 대한 투자이건 매수와 목표주가 43,000원을 유지한다. 3분기 추정 순익은 1조 300억원으로 QoQ 2.5% 증가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형은행지주사들 전반적으로 2분기 중의 자본시장 호조로 인해 크게 확대되었던 증권 브로커리지수수료 및 은행 신탁수수료 등이 최근 증시 부진과 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인해 다시 상당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3분기 실적이 QoQ 기준으로 감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인데 동사의 경우는 이러한 우려에서 빚겨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신탁수수료와 일임보수 등 자본시장 호황에 따른 수수료이익 증가분이 2분기 중 QoQ 700억원에 내외에 그쳐 3분기 감소분 자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7~8월의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외화환산이익이 1,000억 가량 발생할 것으로 보여 이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타행과 달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위의 국고채 입찰 담합 관련 과징금 우려에서도 벗어나 있어 관련 불확실성도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현 주가는 PBR 0.59배에 불과해 매우 저렴한 상황이다. 3분기 실적 시즌을 겨냥한 관심종목으로 제시한다

3분기 CET 1 비율은 14% 육박 전망. 환율 감안시 14% 상회할 가능성도 큰 상황

3분기 CET 1 비율은 14%에 육박하거나 14%를 상회해 QoQ 30bp 이상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중 운영리스크 손실 인식 합리화가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사의 경우 약 +10bp의 상승 효과가 발생하는데다 원/달러 환율이 6월말 대비 160원 이상 하락하면서 추가로 +20bp 상승 영향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 외 9월말까지 약 1,0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자사주 매입분과 1,600억원의 현금배당 지급, 그리고 대출 성장에 따른 RWA 증가 등에도 1조원 내외의 순익 효과로 인해 경성적으로도 CET 1 비율이 5~10bp 추가 상승할 여지가 높아 3분기 CET 1 비율은 14%를 상회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물론 원/달러 환율이 현 수준에서 다시 상승할 경우 CET 1 비율 상승 폭이 예상보다 축소될 수는 있지만 미국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과 수출기업 달러 매도세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내 1,400원선을 크게 상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한편 동양생명 완전자회사화로 인한 CET 1 비율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3,000억원 규모의 신주 발행에 따른 보통주자본 증가분이 보험사 출자금 10% 초과분 직접 차감 영향으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통합 보험사 출범시 긍정적 효과 기대. 3분기 보험 손익 개선될 경우 기대감 커질 듯

동사는 보험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통합 추진에 착수했다. 2027년 하반기 중 총자산 50조원 이상의 통합 생보사 출범이 목표다. 이는 비용절감 효과와 K-ICS 자본비율 안정화, 판매채널 시너지 발생 측면 등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기대한다. 계리적 가이드라인 변경 영향으로 2분기에 다소 부진했던 보험 손익이 3분기 중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보험사 인수에 따른 그룹 이익 확대 기대감이 되살아날 수 있을 전망이다

2026년 8월 27일 | 기업분석

BUY (유지)

목표주가(12M) 650,000원
현재주가(8.26) 408,0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808.21
52주 최고/최저(원)	750,000/214,000
시가총액(십억원)	83,541.2
시가총액비중(%)	1.49
발행주식수(천주)	204,757.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016.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525.6
외국인지분율(%)	24.62
주요주주 지분율(%)	
현대모비스 외 11 인	30.67
국민연금공단	7.3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94,316.6	203,443.4
영업이익(십억원)	11,542.8	13,314.9
순이익(십억원)	11,115.7	12,490.3
EPS(원)	37,963	43,036
BPS(원)	470,968	504,028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75,231.2	186,254.5	198,524.6	207,313.0
영업이익	14,239.6	11,467.9	11,461.7	12,393.5
세전이익	17,781.4	13,841.9	14,175.8	15,206.0
순이익	12,526.7	9,446.0	9,689.4	10,393.5
EPS	46,042	35,331	36,510	39,163
증감율	5.63	(23.26)	3.34	7.27
PER	4.60	8.39	11.18	10.42
PBR	0.52	0.68	0.88	0.83
EV/EBITDA	7.62	10.91	12.01	10.98
ROE	12.43	8.41	8.14	8.22
BPS	405,094	436,418	463,041	492,316
DPS	12,000	10,000	10,000	10,000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박태웅 taewoongpark@hanafn.com

현대차 (005380)**2026년 CEO Investor Day 핵심내용****2030년 수익성 가이드언스를 상향**

현대차 2026년 CEO Investor Day의 핵심내용을 살펴본다. 먼저 **재무 및 판매목표**를 보면, 1) 2026년 영업이익률 가이드언스는 연초 발표했던 6.3%~7.3%를 유지했지만, 2) 2030년 목표로 판매대수 555만대(MS 6.0% 목표)는 유지했고, 영업이익률 목표는 9% 이상으로 상향되었다(vs. 2025년 CID에서는 8~9% vs. 2024년 CID에서는 10%였음). 3) 2030년 지역별 목표는 중남미/중국 비중이 1%p씩 상향되었고, 아태/아중동 비중은 1%p씩 하향되었다. 4)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기존 세그먼트에서는 점유율 확대 및 포트폴리오 합리화, 신규 세그먼트에서는 신차 라인업 및 신규 시장 진출을 제시했는데, 판매대수 증가의 50% 이상이 현재 점유율이 낮은 세그먼트 내 신차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30년까지 모델 100개 이상 목표). 5) 이를 위해 글로벌 생산능력을 127만대 확대하는데, 이는 기존 120만대 대비 인도에서 7만대가 추가된 것이다(미국/인도/한국 +50만대/+32만대/+20만대, 신흥국 CKD +25만대). 6) 2026년 수익성 목표 달성은 HEV 판매 확대를 통한 믹스 개선과 하반기 신차 효과를 제시했고(향후 8개월간 아반떼/아이오닉3/투싼/싼타페EREV 등 7종 출시), 2030년 수익성 목표는 HEV 판매 확대와 xEV 규모의 경제 효과, 그리고 전 PT에서의 원가절감 로드맵을 제시했다. 7) 원가 절감을 통해 약 3%p의 개선을 목표하는데, Lifecycle 원가 혁신을 통해 1.5%p, 재료비 절감을 통해 1.0%p, 현지화를 통해 0.5%p씩 기여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친환경차 목표**로는, 8) 2030년 친환경차 판매 비중 목표는 기존과 같은 60%를 유지했는데, 9)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북미에서는 현재 25%인 HEV 비중을 2030년까지 10개 이상의 모델을 추가하여 50%까지 높이고, 2027년 상반기에는 첫 EREV 모델도 투입한다. 10) 유럽에서는 전 라인업에서 전동화 모델을 추가(2026년 하반기 아이오닉3 투입)하여 현재 12만대 수준인 EV 판매대수를 2030년 42만대 이상을 목표하고, 11) 중국에서는 2026년 중국 전용 모델인 아이오닉V와 2027년 이후 B-SUV/C-SUV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12)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에서 2026년 하반기 GV80 HEV 모델과 GV90 EV 모델, 2027년초 EREV 모델 등도 출시한다. 13) 이를 지원하는 배터리 전략(자체 개발 고성능 배터리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Mid-Ni NCM, 배터리 안전 기술 등)도 강화한다. **미래전략 목표**로는, 14) 모셔널/우버/웨이모 등과 파트너십으로 로보택시 기반의 AV 파운드리 전략을 실행한다(모셔널의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2026년말 라스베이거스 출시). 15) 차량 내 경험 확장과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플라이휠 전략을 실행하는데, 2028년 SDV 모델을 양산하고, 2029년 데이터센터 내재화로 가속되며, 대규모 양산 차량(연간 700만대 이상, 190개 이상 국가)을 기반으로 2033년에는 경쟁사에 버금가는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6) 로보틱스와 관련한 일정은 '2026년 RMAC 개소, 2026년말 부지 규모 10배 확장, 2028년 HMGMA 양산 배치, 2030년 글로벌 확대 적용' 등 기존대로 유지하고, 2028년 미국 내 3만 대 규모로 생산을 개시한다(2026년 생산부지 발표 예정). **주주환원 목표**로는, 17) 총주주환원을 (TPR, 배당+자사주 매입/소각) 35% 이상을 유지했다.

방향성과 실행 전략에 대해서는 동의. 산업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

이번 CID 총평으로 1) 단기/중장기 판매/수익성/미래전략 목표를 위한 방향성과 실행 전략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거시 및 산업 환경 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2)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전략은 기존 발표에서 추가된 내용이 없어 주가의 단기 모멘텀을 강화할 동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이익을 기반으로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주가의 Valuation Premium이 확대될 것인 바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65.0만원을 유지한다.

2026년 8월 27일 | 기업분석_Update

BUY (유지)

목표주가(12M) 200,000원
현재주가(8.26) 111,2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808.21
52주 최고/최저(원)	149,800/89,500
시가총액(십억원)	18,798.7
시가총액비중(%)	0.33
발행주식수(천주)	169,052.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721.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81.9
외국인지분율(%)	15.12
주요주주 지분율(%)	
SK 외 12 인	52.09
국민연금공단	6.03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03,772.4	94,590.5
영업이익(십억원)	8,680.6	4,269.1
순이익(십억원)	3,136.1	2,048.3
EPS(원)	16,865	10,846
BPS(원)	152,340	161,383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74,269.6	80,296.1	98,712.8	87,425.2
영업이익	355.7	448.7	8,446.0	6,784.6
세전이익	(2,302.4)	(5,868.8)	4,329.2	6,060.3
순이익	(2,260.0)	(3,347.9)	2,969.8	4,513.7
EPS	(21,236)	(21,056)	17,439	26,504
증감율	적전	적지	흑전	51.98
PER	(5.27)	(4.81)	7.17	4.72
PBR	0.68	0.78	0.85	0.72
EV/EBITDA	25.24	19.25	4.77	4.99
ROE	(9.65)	(14.42)	12.76	16.71
BPS	164,556	129,671	147,110	173,614
DPS	2,000	0	0	0



Analyst 윤재성 js.yoon@hanafn.com
RA 김형준 do200508@hanafn.com

SK이노베이션 (096770)**SKIET 흡수합병에 따른 기존 주주 보호정책 필요****8/25일 SKIET 흡수합병 공시**

8/25일 SK이노베이션은 이사회 결의로 소규모 합병을 통한 SKIET 흡수합병을 공시했다. 주당 합병가액은 SK이노베이션 125,862원이며, SKIET는 14,783원이다. 이에 따라, SKIET 보통주 1주 당 SK이노베이션 보통주 0.117454주를 신주 발행(448만 1,300주)해 SK이노베이션의 주식 희석 비율은 약 2.6%로 계산된다.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한 53.35%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외부주주 지분 46.65%만 신주로 교환하게 된다. 즉, 합병가액 기준 약 5,640억원의 신주를 지급하고 SKIET 소수주주 지분을 사들이는 구조로 당장의 현금 유출은 없다. SKIET 주주 중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매수청구가 14,620원/행사시점 11/24~12/14일)로 SKIET가 반대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매수대금이 3,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해제나 합병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

회사가 밝힌 흡수합병의 이유: 채무불이행 리스크 확대 선제 차단 목적

SKIET는 현재 독립법인으로 차입금 차환과 운영자금 조달이 어려울 정도의 유동성 위기다. 2025년 8월 PRS 연계 유상증자로 약 3천억원을 조달했음에도, 2026년 상반기 영업손실 -1,367억원으로 영업 현금흐름 적자를 면치 못하며 순차입금 1.15조원, 부채비율 152%로 2025년 말 대비 83%p 급증했다. 영업현금흐름 유출 지속에 더해 1년 이내 상환/차환 대상 금액이 약 6천억원에서 1.25조원으로 급증했으나, 현금/현금성자산 2.4천억에 불과하고 유동비율도 낮고 신용등급도 강등된 상태다. 하지만, 흡수합병 시 SK이노베이션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안정적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해지며, 사업구조의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이번 합병 결정은 독립법인 유지에 따른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이 SK이노베이션 계열 전반의 사업/재무 리스크 확대로 번지기 전에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교육지책인 것이다.

주가는 중장기 리스크 확대를 반영. 기존 주주 보호정책 필요

SKIET 흡수합병에 따른 지분 희석 비율이 2.6% 불과하고 연결재무제표 상 변화가 크지 않음에도 8/26일 주가는 -11% 급락해 마감했다. 이는 1) SKIET의 비지배지분손실 추가 반영 2) 2025년 8월 PRS 계약 관련 차액정산 및 매수청구대금 2~3천억원 발생 가능성 3) SKIET 흑자전환 목표 시점 2029년으로 제시되며 2027~28년 추가적인 손실이나 현금 투입 리스크 확대 가능성 4) 향후 SK온의 외부 지분 10.67% 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추가 현금부담이나 지분 희석 가능성 등을 반영한 영향이다. SK온/SKIET 물적분할 시, SK이노베이션의 기존 주주들은 분할 법인에 대한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지 못했고, SKIET 상장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역시 중복 상장 할인에 따라 SK이노베이션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반면, 현재는 분리막 사업의 부진과 재무위험을 신주 희석과 자금 부담의 형태로 다시 떠안게 되었다. 정유/윤활기유 업황 호조에 따른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지원이 우선이 될 경우 기존 주주에 대한 주주 환원 확대 기대는 약화될 수 밖에 없다. SK온/SKIET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한도를 명확히 설정하고, 업황 호조에 따른 이익 증가분을 자사주 매입/소각 및 배당 확대 방안 등을 통해 기존 주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2026년 8월 27일 | 기업분석_Issue Comment

BUY (유지)

목표주가(12M) 160,000원(상향)
현재주가(8.26) 91,6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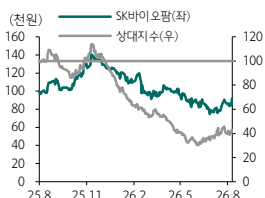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808.21
52주 최고/최저(원)	140,700/74,600
시가총액(십억원)	7,173.5
시가총액비중(%)	0.13
발행주식수(천주)	78,313.3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85.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5.9
외국인지분율(%)	12.53
주요주주 지분율(%)	
SK 외 4인	50.10
국민연금공단	6.00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982.7	1,186.7
영업이익(십억원)	354.8	475.5
순이익(십억원)	322.1	411.0
EPS(원)	4,266	5,451
BPS(원)	14,729	20,328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547.6	706.7	972.7	1,240.0
영업이익	96.3	203.9	340.1	469.8
세전이익	72.6	150.9	366.8	517.8
순이익	240.7	267.0	327.2	409.0
EPS	3,074	3,409	4,179	5,223
증감율	흑전	10.90	22.59	24.98
PER	36.14	36.55	21.92	17.54
PBR	15.93	12.00	6.19	4.58
EV/EBITDA	75.53	43.07	18.71	13.05
ROE	58.01	39.28	33.19	30.00
BPS	6,975	10,382	14,797	20,020
DPS	0	0	0	0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RA 이희경 hklee@hanafn.com

SK바이오팜 (326030)

넥스트 엑스코프리 확보와 경쟁자 견제를 한번에

Opakalim 도입으로 차기 엑스코프리 준비, 탑라인 결과는 올해 하반기 확인

8/26일 Biohaven으로부터 뇌전증 신약 후보 물질인 Opakalim(BHV-7000)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Opakalim은 칼륨 채널(Kv7)을 선택적으로 활성화하는 물질로, 2개의 pivotal 임상2/3(RISE-2: NCT06132893, RISE-3: NCT06309966)을 진행 중이다. RISE-3는 현재 환자 등록을 마쳤고, Biohaven가 올해 8월에 업데이트한 회사 현황에 의하면 올해 하반기 75mg(고용량) 투약군에 대한 탑라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ClinicalTrials.gov에서도 2026년10월 종료 예정으로 확인할 수 있다(탑라인 발표는 2-3개월 뒤 예상). 엑스코프리의 미국 물질특허는 2032년10월30일 존속기간 만료 예정(US7598279)이다. 용법, 용량, 제형 등 별도 특허로 존속기간을 일정 부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번 계약은 이러한 불안 요소를 경감하는데 중요한 성과이다. 아울러 경쟁자로 인식되고 있는 Xenone의 Azetukalner가 하반기 FDA 허가 신청하고 내년 말부터 판매 예정이라 이를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SK바이오팜은 엑스코프리를 통해 미국 뇌전증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Azetukalner와 유사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 만으로도 Xenone 대비 더 빠르게 시장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칼륨 채널 활성화제의 안전성 이슈를 고려하면, 계약금은 그리 크지 않다

8/11일자 리포트에서도 설명하였지만, 칼륨 채널 활성화제는 Retigabine이 심각한 부작용으로 철회된 후, 동일 타겟에 대한 후속 개발이 거의 전무하였다. 한편, Biohaven은 Opakalim을 '22년 Knopp으로부터 약 \$1.23B에 도입한 후, 조증과 주요우울장애 치료제로도 개발했는데, 두 적응증 모두 2상에서 1차 종결점 도달에 실패하며 올해 1월 정신질환 분야로는 개발을 중단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다만 수 차례의 임상을 통해서 GABA 활성을 갖지 않는 기전적 특성과 안전성 데이터는 명확히 확인한 바 있다. 이번 계약이 선금금 \$400M(\$350M 지급 후, 1년 뒤 \$50M 지급)으로 총 계약 규모 \$795M 대비 커 보일 수 있으나, 기전적 특성과 안전성에 대한 인간 데이터에 대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 최근 기술이전 트렌드를 보았을 때, 2/3상 약물을 약 1조원 규모로 도입한 것은 오히려 개발 히스토리 와 SK바이오팜의 유통망 역량의 중요성을 고려해 할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2nd 프로젝트 가치 수정하여 목표주가 160,000원으로 상향, '26년 말 중요

기존의 영업가치는 유지하고, Opakalim 가치를 3조2,199억원으로 산정하였다. 기존에 2nd 프로젝트 도입을 가정하였기에 목표주가는 1만원 상향되었다. 임상1개는 올해 말, 나머지는 '28년 초에 결과를 확인하고, NDA 제출 후 '29년에 승인 및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금금과 마일스톤은 우선 자산화 되고, 매출이 발생하는 '29년부터 감가상각할 예정이다. 올해 말 첫 번째 탑라인에서 Azetukalner 대비 우수성을 확인한다면, 지금까지 Peer 대비 크게 할인된 Valuation 지표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전체적인 재무제표는 거래 완료 후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2026년 8월 27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8월 26일

한국전력(015760)

BUY | TP 45,000원 | CP 34,800원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박시현 boxyhyun@hanafn.com

유틸리티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정책 발표

4개 광역원 11개 권역 산업용 전기요금 최대 10%까지 인하

기후부와 한국전력은 26일에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구체화된 지산지소, 균형성장, 산업경쟁력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 변화로 볼 수 있다. 현재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이 추가로 신설되면서 지역별 요금 차이를 적용한다. 송전비용,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는 구조다. 전국을 수도권 북부, 수도권 남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구분한 이후 광역권에서 지방우대지수 등을 고려하여 11개 권역으로 추가 구분한다. 송전망 건설, 운영 비용을 광역권별 이용 비중에 따라 비례 배분하고 광역권별 전력자급률을 감안해 차등한다. 여기에 인구, 재정, 산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광역권 내 권역별 차이를 추가로 부여하는 구조다.

전기요금 할인 규모는 2.8조원 규모로 제시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산업용 요금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향후 전력통계를 통해 지역별 수요 및 인하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할인폭이 가장 큰 남부권은 원전, 재생에너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약 18원 가량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수도권 남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력 소비가 집중된 지역이기 때문에 할인폭은 가장 낮은 수준을 형성할 전망이다. 현재와 요금이 동일하거나 1원 내외 조정이 예정되어 있다. 강원도와 충청도가 포함된 중부권은 약 15원 가량, 인천 포함 수도권 북부는 약 10원 가량이 인하된다. 이번 제도로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산업용 전기요금 감소 규모는 2.8조원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할인만 있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다음은 발전사업자 차례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초기에 언급되던 방향은 지역별로 전기요금 인상과 인하가 결합된 제도였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산업용으로 국한되고 인상 없이 인하만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국전력의 재무구조에는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소매요금에 이어 도매요금도 지역별 차등 조정이 예정되어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SMP가 아닌 LMP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차등요금제 요금 인하 효과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소재 발전사업자에게는 다소 중립적인 이슈로 예상되며 비수도권 발전사업자는 대체로 매출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이벤트로 해석된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8/24	281,500	261,500	-7.10%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삼성물산 (028260.KS)	8/24	395,500	387,500	-2.02%	- 원전-SMR-태양광-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신사업 확대와 2027년 배당 증가 전망 2026~2028년 계열사 배당수익의 60~70%를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
NAVER (035420.KS)	8/24	222,000	220,000	-0.90%	- AI 데이터센터 공급 부족 속 엔비디아 지분투자 및 200MW 고객사 계약 가시화 7년 이상의 GPU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2027년부터 AI DC 매출이 본격화될 전망
대한항공 (003490.KS)	8/24	25,800	28,150	9.11%	- 화물운임,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해 유가 상승의 부담을 상당히 상쇄 2026년 12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 합병 이후 실적 개선 기대
KCC (002380.KS)	8/24	484,000	472,000	-2.48%	- 삼성물산 특별배당 수취액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재환원하는 정책 신설 - 자사주 소각과 특별배당 6조원 규모 주주환원 강화에 더해 실리콘 업황 업사이클 진입
DN오tom티브 (007340.KS)	8/24	44,200	47,400	7.24%	- 글로벌 공장기계 업황 회복과 우주항공·방산·로봇 등 고수익 산업향 수주 확대 - Heller 인수 시너지 2027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 높아
농심 (004370.KS)	8/24	432,500	459,000	6.13%	2Q26 Review 매출액 9,561억원(YoY +10.2%), 영업이익 593억원(YoY +47.6%) 기록 - 복미 수익성 개선 및 글로벌 라면 업체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SK이티닉스 (475150.KS)	8/24	51,300	53,900	5.07%	3Q26부터 연료전지·풍력 프로젝트와 솔라닉스 후속 사업의 매출 인식 확대 - SK그룹 및 반도체-데이터센터향 재생에너지 PPA 수요 확대 수혜 가능성
실리콘투 (257720.KQ)	8/24	47,650	51,800	8.71%	- 미국·유럽 오프라인 리테일러 주문 확대에 힘입어 2Q26 호실적 기록 - 한국 화장품 산업 역사상 최대 수출 모멘텀의 최대 수혜 업체
티에프이 (425420.KQ)	8/24	40,800	46,750	14.58%	- cpo, socamm 등 어플리케이션 확대, 고객사 다변화로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 테스트 수요 성장에 따른 테스트 소켓 수요 증가세 지속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84%	+5.31%p	+75.06%	+14.04%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코스맥스 (192820.KS)	8/24	271,000	288,000	6.27%	- 국내 고성장과 미국 법인 흑자전환, 동남아 턴어라운드 동시 진행 - K-뷰티 수출 호조와 글로벌 ODM 1위 경쟁력이 본격 반영되는 가운데 12MF PER 11배 수준
NAVER (035420.KS)	8/18	228,000	220,000	-3.51%	- AI 데이터센터 공급 부족 속 엔비디아 지분투자 및 200MW 고객사 계약 가시화 7년 이상의 GPU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2027년부터 AI DC 매출이 본격화될 전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KS)	8/10	1,097,000	1,087,000	-0.91%	- K9 자주포천무 중심의 유럽 중동 수출 확대로 지상방산 수주잔고 약 39.7조원까지 증가 -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성장과 수주 기대감 재차 확대될 전망
삼성SDI (006400.KS)	8/10	459,000	516,000	12.42%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승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팬오션 (028670.KS)	8/10	6,040	5,610	-7.12%	- BDI 강세와 탱커 운임 상승으로 벌크탱커 부문 이익이 확대되며 호실적 기대 - SK해운 인수 VLCC의 실적 기여와 증장기 운임 강세가 추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
삼성전자 (005930.KS)	8/3	262,500	261,500	-0.38%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삼성전기 (009150.KS)	8/3	1,142,000	1,330,000	16.46%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풍산 (103140.KS)	8/3	71,200	82,400	15.73%	- 전기동 가격 강세에 따른 메탈 이익과 해외 신동 자회사 수익성 개선 기대 2분기 이연된 방산 매출의 3분기 인식으로 실적 반등 예상
SK이노베이션 (096770.KS)	7/20	121,400	111,200	-8.40%	- 윤활기유 호조와 SK온 적자 축소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회 전망 - 정제마진 강세와 그룹3 윤활기유 공급 부족으로 2026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 기대
KB금융 (105560.KS)	7/13	184,400	166,400	-9.76%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430,000	27.79%	-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7.15%	-0.48%p	+40.08%	-20.98%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시테크 TOP10 (485540)	2026.07.16	16,205	14,875	-8.2%	-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 AI 관련 키워드 유사성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과 LLM 스코어링을 합산하여 편입 비중을 산정. 1위~3위 기업은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해 집중도를 높인 구조 - 현재 핵심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며, AI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AI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	2026.02.24	15,160	12,040	-20.6%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KODEX AI반도체 TOP2플러스 (395160)	2026.02.27	29,560	38,615	30.6%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PLUS 글로벌 HBM반도체 (442580)	2026.07.16	106,895	98,900	-7.5%	- HBM(고대역폭메모리) 밸류체인인 핵심 제조사와 장비·부품·소재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HBM 집중 테마 ETF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 합산 비중이 75% 수준으로 핵심 제조사에 집중된 구조이며, 그 외 글로벌 장비, 부품 관련 기업까지 편입해 HBM 성장 모멘텀 전반의 수혜 기대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액티브 (0199C0)	2026.07.16	9,980	9,420	-5.6%	- 고배당주 80%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 비중으로 편입하여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 포트폴리오의 30% 비중까지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로 월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고 비과세 배당 종목을 편입하여 배당과 절세를 함께 추구. 향후 국내 데일리 옵션(ODTE) 도입 시 추가적인 배당 자원 확보 가능. 액티브 운용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커버드콜 비중 조절
TIME 글로벌우주테크 &방산액티브 (478150)	2026.07.16	21,300	19,700	-7.5%	- 우주 산업의 성장과 방산기업들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액티브 ETF로 시장 상황에 맞게 편입 종목과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 - SpaceX 상장 이후 본격화되는 우주 산업 투자 사이클과 글로벌 주요국들의 국방비 증액 추세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TIGER 글로벌 AI사이버보안 (418670)	2026.07.16	18,430	16,420	-10.9%	- 글로벌 기업 중 사이버보안 연관 산업에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하는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패시브 ETF - AI 확산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시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 대상에서 AI 도입 시 필수 인프라로 전환됨에 따라 AI 보안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기대
KODEX 미국 AI전력핵심인프라 (487230)	2026.07.16	23,200	19,145	-17.5%	- AI 성장 과정 속에서 전력 인프라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핵심 분야로 관련 기업들은 공급자 우위 구조 속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 - 주요 빅테크의 파트너로 선정되고 있는 미국 전력 생산·송배전·데이터센터 핵심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국내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원(KRW)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CHAT (생성형 AI 및 기술)	2026.07.16	88.42	87.22	-1.4%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 내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앤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KBWB (미국 은행)	2026.07.16	98.44	96.48	-2.0%	• IPO와 M&A 시장 회복, AI 인프라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 대형은행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 • 미국 금융 섹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 국면이 전개될 전망
CBR (사이버 보안)	2026.07.16	93.09	92.46	-0.7%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24	86.08	14.4%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26.13	555.82	70.4%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DRAM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2026.06.22	76.71	56.24	-26.7%	• AI 혁명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컴퓨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밸류체인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한 순수 메모리 테마 ETF • 광범위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 ETF와 달리, HBM(고대역폭메모리) 및 차세대 DRAM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제조사에만 집중 투자하여 차별화된 고성장 모멘텀 수혜 기대
GRID (전력망 및 스마트그리드)	2026.07.16	182.63	179.41	-1.8%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XBI (바이오테크)	2026.07.16	156.22	169.10	8.2%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일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국내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달러(USD)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8.23	8.24	8.25	8.26	8.27	8.28	8.29
		- 한국 8월 소비자심리지수 (104.5, 이전치 106.8) - 미국 6월 FHFA 주택가격지수 (0.0%, 이전치 0.3%) - 미국 7월 신규주택매매 (-10.5%, 이전치 7.6%) - 미국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89.4, 이전치 90.2)	- 미국 7월 개인소득 (E 0.2%, 이전치 0.2%) - 미국 7월 개인소비지수 (E 0.1%, 이전치 0.3%) - 미국 7월 PCE (E 3.6%, 이전치 3.7%) - 미국 7월 근원 PCE (E 3.3%, 이전치 3.3%) - 미국 7월 내구재 주문 (E 0.5%, 이전치 0.5%)	- 한국 8월 금리 결정 (E 3.0%, 이전치 2.75%) - 중국 7월 산업생산 (E --, 이전치 15.1%) - 일본 7월 공작기계 수출 (E --, 이전치 50.4%) - 미국 7월 도매 재고 (E 0.2%, 이전치 0.2%)	- 일본 7월 실업률 (E 2.5%, 이전치 2.5%) - 미국 8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E 51.0, 이전치 51.0)	
8.30	8.31	9.1	9.2	9.3	9.4	9.5
	- 한국 7월 광공업생산 (E --, 이전치 5.8%) - 일본 7월 소매판매 (E --, 이전치 -4.1%) - 중국 8월 제조업 PMI (E 49.8, 이전치 49.2) - 중국 8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49.0)	- 한국 8월 수출 (E --, 이전치 62.9%) - 한국 8월 수입 (E --, 이전치 26.5%) - 일본 8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5.1) - 한국 8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3.1) - 유로존 8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1.9) - 유로존 8월 CPI (E --, 이전치 2.9%) - 유로존 7월 실업률 (E --, 이전치 6.3%) - 미국 8월 ISM제조업지수 (E --, 이전치 55.6)	- 한국 8월 CPI (E --, 이전치 2.8%) - 미국 8월 ADP 고용 변화 (E --, 이전치 44k)	- 일본 8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2.3) - 유로존 8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1.7) - 미국 8월 ISM서비스업지수 (E --, 이전치 55.6)	- 미국 8월 비농업고용지수 (E --, 이전치 -23k) - 미국 8월 실업률 (E --, 이전치 4.1%)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함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